'서울시민옴부즈만좇' 아는 시민 절반뿐…

"옴부즈만·조사관 전문성 강화해야"

시민의 편서 고충 해결·행정 감시
위원회 처음 들어본 시민 13.7%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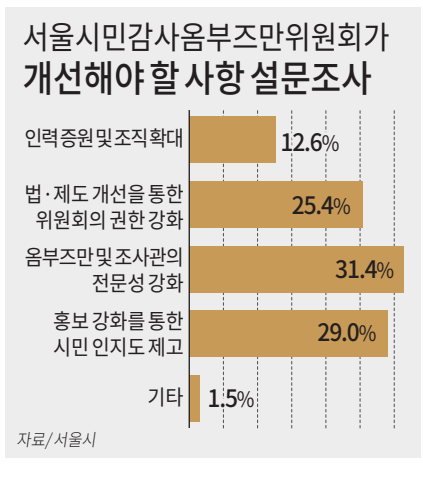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23일 온라인 패널 2894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회)는 시민의 편에서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에는 1996년 1월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됐다.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위원회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53.6%)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32.7%, '처음 들어보며, 위원회가 뭔지 전혀 모른다'는 13.7%였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민원배심제 ▲공공사업 감시·평가가 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조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낱낱이 살펴 부조리를 차단한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자료/서울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기관임에도 '위원회를 이용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93.1%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의 6.9%만이 위원회를 이용해본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이 이용해본 위원회 업무(중복 응답)는 고충민원 제기(응답소, 서면 등)가 50.6%로 절반에 이르렀다. 시민·주민 감사 청구(47.1%), 고충민원 전화·방문 상담(39.5%), 민원배심제(12.8%)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활성화돼야 하는 위원회 기능으로 '공공사업 감시·평가'(46.1%)를 꼽았다. 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옴부즈만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가 31.4%로 응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29%), '법·제도 개선을 통한 위원회 권한 강화'(25.4%), '옴부즈만·조사관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12.6%) 순이었다.

현재 위원회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응답자들은 위원회 시민 참여 제고 방안으로 '온라인을 통한 감사청구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42.9%), '인터넷·SNS를 활용한 위원회 홍보 확대'(22.7%), '주민 모임 방문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과 소통 강화'(19.3%),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활성화'(14%)를 제안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서울시정 감시와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48.9%였다.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24.7%, 잘 모르겠다는 20.3%,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6.1%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딜쿠샤 전시관 전경. /서울시

3·1운동 알린 美 특파원 가옥 '딜쿠샤' 개방

서울시 매주 화~일요일 운영

서울시는 3·1운동을 전세계에 알린 미국 연합통신의 임시특파원 앨버트 테일러의 가옥을 '딜쿠샤' 전시관으로 만들어 삼일절에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딜쿠샤의 주인 '앨버트 W. 테일러'는 1896년(고종 33) 조선에 들어와 평안도 운산 금광 감독관을 지내고 충청도의 직산 금광을 직접 운영한 광산 사업가였다. 연합통신 임시특파원으로 활동하며, 3·1 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을 해외에 보도해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공헌했다.

시는 앨버트 테일러가 살던 집인 '딜쿠샤'의 원형을 복원해 독립의 숨결을 기억하는 역사 전시관으로 조성했다. 딜쿠샤는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딜쿠샤 전시관'은 총면적 623.78㎡(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오는 3월 1일 문을 여는 딜쿠샤 전시관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 당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계획안 통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당산동 331-1번지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2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지하 2층에는 영화관,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생긴다. 2개동의 도시형생활주택 192가구와 오피스텔 40실도 마련된다. 착공은 9월, 준공은 2024년 8월로 예정됐다.

사업부지는 지하철 2·9호선 당산역에 접해 있다. 여의도-합정(신촌)-강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고층에서는 한강, 여의도, 남산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교통난 해소 'GTX'… 환승거점 추가 요청

서울시, 국토부에 3곳 신설 건의
서울 중심부 목적지 비율 60%

서울시는 관내 광화문·동대문·왕십리역 총 3곳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거점을 더 만들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A, B, C 3개 노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환승거점 추가 신설 요청을 한 곳은 GTX-A노선 광화문(시청)역, B노선 동대문(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C노선 왕십리역이다.

현재 GTX-A노선은 총 10개 정거장으로 계획돼 서울시내 수서·삼성·연신내·서울역을 지나게 돼 있다. B노선은 13개 정거장으로 관내에서는 신도림·여의도·용산·청량리·망우·서울역을 통과한다. C노선의 정거장은 총 10개이며, 서울에서는 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이 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 의하면 서울 도심까지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나 환승을 통한 실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부족해 향후 수도권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설 정거장을 선정해 건의했으며 향후 추가 정거장이 생기면 수도권 외곽에서 장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승객들에게 편리한 GTX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도심으로 이동하며, 서울 중심부를 관통해 이동하는 비율은 낮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2019년) 결과에 따르면 파주·고양 축(GTX-A노선)의 경우 서울 중심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목적지인 비율은 약 60%로 높았고, 도심을 지나 서울 남부(한강 이남)까지 이동하는 통행 비율은 18.2%에 그쳤다고 시는 덧붙였다.

GTX 이용객의 서울시내 주요 정거장 환승 비율은 71%에 달했는데 이를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정거장에서 하차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시 지하철 등 교통수단으로 추가로 환승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계획을 보완해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수도권 이용객을 위해서는 주요 환승 거점 정거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첫 삽'

파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단지를 건립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파주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의 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제)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일원에 조성, 총 사업비 1조 6520억 원이 투입되며 ▲종합의료시설(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R&D센터 ▲바이오융복합단지 ▲배후지원시설을 건립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승인(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받아 2022년 실시계획승인 및 토지보상 이후 공사에 착공해,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설공사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백신 접종 지원 '119신속대응팀' 배치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5명 등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23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119신속대응팀을 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소방력은 구급대원 5명과 구급차 1대다.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대원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센터 운영지침 작성을 포함한 사전준비와 응급상황 환자 이송 업무를 지원한다. 이들은 또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대피유도 같은 사고대응 임무도 맡는다.

본부는 백신 접종 관련 소방력 지원 외에 해당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소방서, 구청,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중앙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화재 취약요인을 살폈다.

아울러 본부는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 소방차를 이용한 순찰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본부는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중앙예방접종센터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현지 적응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부는 내달 중 설치되는 성동구 지역접종센터에도 소방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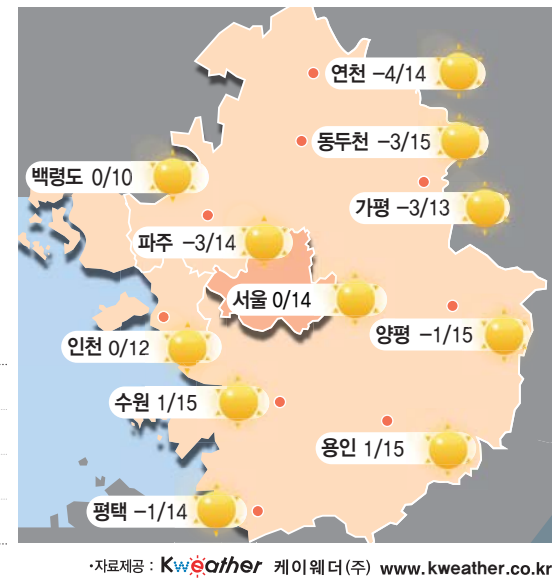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8 | 해짐 / 18:23

2월
26일 (金)
음력 : 1월 15일

수도권 날씨
0 ~ 1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